

# 문학 해설지

문항별 상세 해설 · 1번 ~ 17번

문항	1	2	3	4	5	6	7	8	9	10
정답	③	④	②	⑤	①	④	①	③	①	⑤

문항	11	12	13	14	15	16	17
정답	②	③	⑤	④	②	③	④

**평가 목표** 이 문항은 [A] 구간의 서술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동일한 공간에서 인물에 따라 초현실적 존재를 인지하는 양상이 달라지는 서술 방식을 중심으로 각 선택지의 적절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①

[A]에서 서술자는 정 공의 행동과 심리, 귀인의 등장 등을 전달할 뿐 상황의 의미를 평가하거나 논평하지 않는다. **"기이하고 놀라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는 인물의 심리를 서술한 것이지 서술자의 논평이 아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②

[A]에서 귀인의 외양에 대해 **"연각오사모를 쓰고, 온갖 꽃을 수놓은 비단 도포를 입고, 서대를 돌렸다"**라고 묘사하고 있으나, 이는 초현실적 존재의 등장을 시각적으로 구현하여 비현실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지, 인물에 대한 경외감을 고조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③ ✓ 정답

[A]에서 정 공은 **"떠들썩하게 소리쳐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귀인의 행렬을 보지만, 하인들은 **"아무 소리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라고 하고, 아전은 **"송정이 고요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한다. 같은 관아라는 공간에서 정 공만이 초현실적 존재를 감지하고 주변 인물들은 감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제시되어 비현실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④

[A]에서 인물의 말과 행동은 사건의 순차적 전개에 따라 나타나며, 이를 교차하여 갈등의 원인을 밝히는 구조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⑤

[A]에서 **"크게 놀라 급히 아전에게 물었다"**라는 부분에서 놀람과 행동이 함께 나타나지만, 이는 심리와 행동을 동시에 서술한 것이지 내적 동요를 행동으로 전환하여 서술한 것이 아니다. [A]에서 비현실적 분위기 형성의 핵심은 인물 간 인식의 괴리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평가 목표** 이 문항은 ㉠에 나타난 정태화의 판단과 그에 따른 행동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 시점에서 정태화가 인지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중심으로 각 선택지의 적절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①

윗글에서 정태화는 **"떠들썩하게 소리쳐 부르는 소리"**를 들었으나 하인들은 **"아무 소리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라고 한다. 자신의 인식과 주변 반응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당혹감이 소리를 확인하게 한 동기이므로 적절하다.

②

윗글에서 종사가 **"이 고을의 현위가 예절을 전혀 알지 못하니, 그 아전을 대신 다스리겠습니다"**라고 한 뒤 아전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정태화가 ㉠을 보고 귀인을 절하여 맞이하자 귀인이 **"아전들에게 내린 벌을 풀어 주어라"**라고 하여 아전이 정신을 차렸다. 정태화의 대응이 아전의 위해 정도에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윗글에서 아전들은 **"사또께서는 누구에게 절하고 무릎을 꿇으십니까?"**라고 하였고, 앞서 아전은 **"송정이 고요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라고도 하였다. 정태화가 맞이하는 귀인을 아전들이 인지하지 못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 정답

㉠(**"기미가 심상치 않음을 보고"**)의 판단 시점에서 정태화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종사의 위협 이후 아전이 실신한 초자연적 현상의 심각성이다. 귀인의 화려한 복장에서 높은 지위의 존재임은 추론할 수 있으나, **"개국공신 하륜"**이라는 구체적 내력은 이후 ㉡에서 하륜이 직접 밝힌 것이다. 따라서 ㉠ 시점에서 귀인의 내력을 짐작하고 그에 합당한 예를 갖추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윗글에서 정태화가 절하여 맞이하자 귀인이 좌우를 물리게 하고 **"아전들에게 내린 벌을 풀어 주어라"**라고 하였다. 앞서 종사가 **"현위가 예절을 전혀 알지 못하니"**라고 하였던 것과 대비하면, 정태화가 예를 갖추어 대응한 것이 귀인의 기대에 부합하여 벌 해제로 이어진 것이므로 적절하다.

**평가 목표** 이 문항은 ㉠~㉣에 나타난 인물의 발화 태도와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각 마커에 해당하는 발화의 맥락과 인물의 태도를 정확히 대응시키며 각 선택지의 적절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①

㉠에서 "현감과는 **앞뒤로 수백 년의 세월이 서로 다른데, 어찌 내 얼굴 모습을 알 수 있겠소?**"는 수백 년의 시간적 거리에서 상대가 자신을 알 수 없음을 환기하는 것이지, 알아보지 못함에 대한 불만이 아니다. 또한 ㉣에서 "**간명하면서도 핵심을 찌른 말씀이라 마음과 몸이 모두 경복하게 만듭니다**"는 하륜의 직언에 감복한 것인지 상대의 제안에 동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② ✓ 정답

㉡에서 하륜은 "**만 번 죽을 고비를 드나들며 겨우 가문을 일으켰소**"라고 자신의 업적을 돌아본 뒤, "**후손들이 끝내 불초하여 나무꾼과 목동 사이에 섞여 지내는가?**"라며 후손의 처지를 안타까워하고 있다. ㉢에서 하륜은 "**존망을 걸고 변방에서 죽는다면 죽어도 이름이 남을 것이오**"라고 하여 진정한 절개를 제시한 뒤, "**대의를 출세의 계단으로 삼으며, 속으로는 오랑캐를 두려워하면서 겉으로만 명성을 얻는다면 인정할 만한 점을 찾지 못하겠소**"라고 하여 명분만의 허세를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③

㉢ 발화 자체에는 상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없다. 분묘에 대한 청원은 ㉡ 표시 바깥의 발화에 해당한다. 또한 ㉣에서 "**간명하면서도 핵심을 찌른 말씀**"이라 한 것은 이의 제기가 아니라 감복의 표현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④

㉣에서 시간적 거리를 들어 상대가 자신을 모를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 있다는 점은 적절하나, ㉢에서 하륜은 "**인정할 만한 점을 찾지 못하겠소**"라며 북벌론의 명분 도용을 비판하고 있으므로 당대의 논의를 긍정하며 조정의 방침을 지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⑤

㉢에서 "**길흥은 너무도 알기 쉬우니 물을 것도 없소**"라고 하였으므로 확답을 유보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견해를 표명한 것이다. 또한 ㉣에서 정 공의 감복은 자발적 인정이지 권위에 압도되어 견해를 철회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평가 목표** 이 문항은 〈보기〉에 제시된 대담 구조의 서사적 기능을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보기〉의 개념과 작품의 구체적 장면을 정확히 대응시키며 각 선택지의 적절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①

윗글에서 하륜이 ㉠에서 **"개국공신 하륜이오"**라고 지위를 밝히고 **"수백 년의 세월이 서로 다른데"**라고 시간적 거리를 환기한 것은, 〈보기〉에서 초현실적 존재가 **"시간적 거리나 초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절하다.

②

윗글에서 정태화가 **"군사를 일으켜 청나라의 죄를 묻고 대의를 펴고자 합니다"**라고 당시 조정의 주류 담론인 북벌론을 전달한 것은, 〈보기〉에서 현실의 인물이 **"반응을 통해 당대의 통념이나 지배적 논리를 드러낼 수 있다"**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절하다.

③

윗글에서 하륜이 ㉢에서 **"존망을 걸고 변방에서 죽는다면 죽어도 이름이 남을 것이오"**라고 한 뒤 **"대의를 출세의 계단으로 삼으며, 속으로는 오랑캐를 두려워하면서 겉으로만 명성을 얻는다면 인정할 만한 점을 찾지 못하겠소"**라고 하여 북벌론의 허세를 비판한 것은, 〈보기〉에서 **"현실의 인물이 직접 개진하기 어려운 견해를 거침없이 제시"**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절하다.

④

윗글에서 하륜이 **"부유한 권세가에 여덟 가지 일마다 담당하는 종이 있소"**라며 종 비유를 통해 국정 쇄신의 원리를 제시한 것은, 〈보기〉에서 **"작가가 당대의 민감한 현안에 대해 특정 인물의 발언으로 우회하여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서사 전략"**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절하다.

⑤ ✓ 정답

윗글에서 정태화가 **"법이 오래되어 폐단이 생겼으니 가르침을 주십시오"**라고 한 것은 하륜의 탁상공론 비판에 **"참으로 말씀하신 그대롭니다"**라고 공감한 뒤 구체적 해법을 모색하는 발언이다. 이는 당대의 통념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륜의 견해를 수용한 뒤 추가 조언을 구하는 것이므로, 〈보기〉의 **"당대의 통념이나 지배적 논리를 드러낼 수 있다"**의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당대의 지배적 논리를 드러낸 것은 앞서 북벌론을 전달한 대목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평가 목표** 이 문항은 (가)~(다)에 나타나는 표현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각 작품에 사용된 표현 기법과 그 효과를 중심으로 각 선택지의 적절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 ① ✓ 정답

(가)에서 "**매운 계절의 채찍**"은 촉각적 이미지를, "**서릿발 칼날진**"은 촉각과 시각의 이미지를 결합하여 화자가 놓인 공간의 극한적 속성을 형상화하고 있다. (나)에서는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처럼 행위의 속도를 비교하는 표현을 반복하여 풀의 역동적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②

(가)에 "**매운 계절**", "**겨울**" 등의 시어가 있으나, 이는 계절의 순차적 변화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극한 상황의 이미지를 제시한 것이다. (나)에서도 풀의 행위는 일방적으로 확대되는 점층이 아니라 눕고 일어나는 반복과 역전의 구조를 보인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③

(가)에서 "**채찍**", "**칼날**", "**강철**" 등은 대상의 속성을 열거한 것이 아니라 감각적 이미지를 병치하여 공간의 극한성을 형상화한 것이다. (나)에서 풀과 바람의 관계는 대립이 아니라 상호적인 역동적 대응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④

(나)에서 가정의 표현이 반복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는 비유적 표현이 일부 사용되지만 중심 전개 방식은 논증이므로 비유적 표현을 중심으로 대상을 평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⑤

(가)의 4연은 극복 의지의 점층적 강화가 아니라 내면적 전환에 해당하며, (나)의 풀은 극복 의지라기보다 유연한 대응으로 바람을 넘어서는 양상을 보인다. 두 작품을 동일한 극복 의지의 점층으로 포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평가 목표** 이 문항은 〈보기〉에 제시된 이원적 구조의 개념을 (가)에 적용하여 감상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보기〉의 "**내면의 전환**"과 "**상황 속에서 획득되는 정신적 경지**"라는 개념을 (가)의 구체적 표현에 대응시키며 각 선택지의 적절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①

(가)에서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같겨**" "**북방으로 휩쓸려**" 온 것은, 〈보기〉에서 말하는 "**외부의 힘에 의해 극한까지 밀려난 상황**"에 부합한다. 따라서 적절하다.

②

(가)에서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은 하늘마저 한계에 이른 극한 공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에서 말하는 "**전반부에서 외부의 힘이 화자를 압도하는 양상**"에 부합한다. 따라서 적절하다.

③

(가)에서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는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기〉에서 말하는 "**긴장을 회피하지 않고**"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는 양상에 부합한다. 따라서 적절하다.

④ ✓ 정답

〈보기〉에서 화자의 인식 전환은 "**상황의 소멸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획득되는 정신적 경지**"라고 하였다. 그런데 ④는 "**극한의 상황에서 벗어나 안전한 내면의 세계로 이동한 것**"이라고 하여 인식 전환을 상황으로부터의 이탈로 감상하고 있다. (가)에서 "**눈 감아 생각해 볼밖에**"는 상황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안에서 내면적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므로, 이를 상황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가)에서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갯가 보다**"는 극한의 겨울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기〉에서 말하는 "**상황 속에서 획득되는 정신적 경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적절하다.

**평가 목표** 이 문항은 (나)의 [A]~[C] 각 구간에 나타나는 시상 전개와 시제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각 블록 구간의 서술 방식과 의미를 중심으로 각 선택지의 적절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 ① ✓ 정답

[A]에서 "울었다", "누웠다"는 과거형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이는 [B]의 "눕는다", "일어난다"라는 현재형 서술과 시제가 구별된다. [A]의 과거형 서술은 풀이 바람에 처음 반응한 상황을 지나간 사건으로 제시하여, [B]에서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라는 반복적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기점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②

[A]에서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는 외부 환경의 악화에 따라 풀이 더 울고 더 눕는 것이지, 풀의 저항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다. 풀의 눕고 우는 행위는 저항이 아니라 바람에 대한 반응이며, 이후 [B]에서 "먼저 일어남"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③

[B]에서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는 바람의 위세에 눌려 미리 몸을 낮추는 회피가 아니다. 직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와 연결하면, 빨리 눕는 것은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기 위한 과정적 동작으로, 외부의 힘에 앞서 반응하는 유연한 대응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④

[B]에서 "발목까지 / 발밑까지"는 눕는 깊이를 나타내지만, [C]에서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로 이어지므로 풀이 완전히 제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⑤

[C]에서 "풀뿌리가 눕는다"는 풀에서 풀뿌리로의 심화를 나타내지만,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직후에 제시되므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 볼 수 없다. 뿌리까지 눕되 다시 시작되는 순환을 암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평가 목표** 이 문항은 (다)의 ㉠~㉥ 각 마커 문장이 논증 구조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각 마커 문장의 논증적 기능을 중심으로 각 선택지의 적절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①

㉠에서 "**의리상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과 "**결코 죽지 않아서는 안 될 상황**"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축고의 행위가 전자에 해당함을 논증하기 위한 원칙적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적절하다.

②

㉡에서 "**신릉군은 본디 어질어 선비에게 몸을 낮추는 인물**"이라 밝히고 당저의 깨우침에 즉각 뉘우친 사례를 제시하여, 축고가 재차 의로써 거절하면 신릉군이 수용했으리라는 판단의 전제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③ ✓ 정답

㉢에서 "**어찌 축고 홀로 이를 듣지 못하였단 말인가?**"는 수사적 질문이다. 이 질문의 초점은 신릉군의 현명함을 강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축고가 신릉군의 인물됨을 파악하지 못한 판단력의 부재를 비판하는 데 있다. 직후 "**축고가 택해야 할 올바른 도리는 다시금 의로써 거절하는 것이었다**"로 이어지는 맥락에서도 ㉢의 기능은 축고의 판단 오류를 지적하는 것이 확인된다. ③은 이를 신릉군의 책임을 부각하는 것으로 보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에서 "**도랑에 빠져 죽는 필부의 알량한 지조**"라는 비유는 축고의 죽음이 대의가 아닌 좁은 명분에 매인 행위였음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적절하다.

⑤

㉤에서 "**비록 그러하나**"로 시작하여 논지를 전환하고, 죽음을 택한 용기와 의리를 지킨 절개라는 두 가지 미덕을 인정하는 양보적 논증의 기능을 한다. 따라서 적절하다.

**평가 목표** 이 문항은 ㉠ "서다"와 ㉡ "눕는다"가 각 작품에서 갖는 시간적 양상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두 시어가 나타내는 자세의 성격을 중심으로 각 선택지의 적절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① ✓ 정답

㉠ "서다"는 (가)에서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는 상황, 곧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극한 지점에서 취한 자세로 결단의 순간을 나타낸다. ㉡ "눕는다"는 (나)에서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바람보다 먼저 웃는다"로 이어지는 동작의 되풀이 속에서, 눕고 일어남이 계속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이 한 지점에 고정된 일회적 자세라면 ㉡은 반복적 순환 속에 놓인 과정적 동작이다. 따라서 적절하다.

②

㉠ "서다"는 이전 움직임인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의 단순한 중단이 아니라 극한 공간에서 능동적으로 취한 자세이다. ㉡ "눕는다"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전환이 아니라 눕고 일어남이 되풀이되는 반복적 동작의 한 국면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③

㉠ "서다"는 주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자세가 아니라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는 것으로, 극한의 조건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자세이다. ㉡ "눕는다"는 주변의 변화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바람의 움직임에 맞물려 이루어지는 동작이다. ㉠과 ㉡의 특성이 뒤바뀌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가)에서 "매운 계절의 채찍"과 "겨울"은 여전히 지속되고, (나)에서 바람은 계속 불고 있다. 외부의 상황이 안정된 것이 아니며, ㉠과 ㉡ 모두 상황이 진행되는 가운데 취해진 자세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⑤

(가)에서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는 평정이 아닌 긴장의 표현이고, (나)에서 "울었다", "울고"는 평정이 아닌 고통의 표현이다. 두 작품 모두에서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는 자세라 보기 어려우므로 적절하지 않다.

**평가 목표** 이 문항은 〈보기〉에 제시된 주체와 외부의 힘의 대응 관계를 (나)와 (다)에 적용하여 감상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보기〉의 **"힘의 성격에 대한 인식"**, **"대응의 양상"**, **"결과에 대한 평가"**라는 개념을 각 작품에 대응시키며 각 선택지의 적절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①

(나)에서 **"바람보다도 더 빨리 늙는다"**는 풀이 바람에 앞서 반응하는 대응의 양상을 나타낸다. 이는 〈보기〉에서 말하는 **"힘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개념에 부합하며, 풀이 바람의 움직임을 체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②

(다)에서 글쓴이가 **"신릉군은 본디 어질어 선비에게 몸을 낮추는 인물"**이라고 밝힌 것은, 축고가 마땅히 인식했어야 할 외부의 힘의 성격을 제시한 것에 해당한다. 이는 〈보기〉에서 말하는 **"힘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라는 개념에 부합한다. 따라서 적절하다.

③

(나)에서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는 풀이 바람에 대응한 결과 회복을 이룬 것으로, 〈보기〉에서 말하는 **"대응이 주체와 주변에 미치는 결과"**에서 주체에게 가져다준 긍정적 결과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절하다.

④

(다)에서 축고의 자결이 신릉군에게 악명을 남기게 만들었다는 것, 곧 **"남의 허물을 조성해 준 셈"**이라는 평가는, 〈보기〉에서 말하는 **"대응이 주체와 주변에 미치는 결과를 통해"** 이루어지는 평가에 부합한다. 따라서 적절하다.

⑤ ✓ 정답

(다)에서 글쓴이는 **"축고는 사람을 감별할 줄 몰랐던 것이다"**라고 명시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어찌 축고 홀로 이를 듣지 못하였단 말인가?"**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는 축고가 신릉군의 인물됨을 파악하지 못했기에 성급한 자결이라는 부적절한 대응을 택했음을 드러낸다. ⑤는 이를 정반대로 감상하여, 축고가 신릉군의 인물됨을 정확히 파악했기에 불가피한 대응을 선택한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평가 목표** 이 문항은 윗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행동과 심리, 인물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감독의 연설에 대한 인물들의 반응과 그 이면에 담긴 인식의 차이를 중심으로 각 선택지의 적절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①

선비의 부끄러움은 감독의 질책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자신"**의 처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감독의 말은 **"기가 막혔다"**는 감정을 유발한 것이다. 또한 간난이는 즐거이상 이미 태수의 지도를 받아 온 조직 활동가로서 감독에 대한 비판 의식이 이 장면 이전에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계기로 적대감을 갖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② ✓ 정답

[A]에서 감독의 연설 직후 **"여공들의 눈에는 희망과 환희의 빛이 떠올랐다"**에서 여공들은 감독이 제시한 시책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반면 간난이는 [B]에서 **"그럴듯한 수작을 하여 우리들을 속여서 돈 한푼 우리 손에 쥐어 보지 못하게 하고 죽도록 우리들을 일만 시키자는 것"**이라며 감독의 시책을 속임수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공장의 현실에 대한 인물들의 이해가 서로 다른 수준에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하다.

③

감독의 **"처음 와서도 아주 잘 해"**라는 말은 간난이의 작업에 대한 평가이지만, 이것이 간난이의 태도를 다른 여공에게 본보기로 삼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특정할 근거는 윗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④

선비가 **"어떤 딴 세계에 들어왔는가?"**라고 느낀 것은 **"전깃불이 환하게 들어왔다"**를 계기로 **"온갖 기계며 여직공들을 볼 때"** 생겨난 감각적 이질감이지, 간난이와 감독 사이의 관계를 묵도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⑤

[B]에서 간난이의 당부는 **"너 아까 감독이 한 말을 다 곧이들었니?"**에서 **"너"**가 선비를 향하고 있으며, 이후의 반박도 감독의 기만성을 선비에게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여공들의 태도를 교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선비에게 착취 구조를 인식시키려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평가 목표** 이 문항은 ㉠~㉥으로 표시된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작품의 맥락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각 마커에 해당하는 장면의 전후 맥락을 고려하여 각 선택지의 적절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①

㉠에서 간난이가 **"생긋 웃어 보이며 머리를 흔들었다"**는 것은 선비의 **"내 좀 하리!"**라는 요청을 거절하면서도 안심시키려는 행동이다. 간난이는 **"늘 해보던 것이 되어서 모든 것을 손익계"** 하는 숙련 노동자로서 선비가 작업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뜻을 전하며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②

㉡에서 선비의 부끄러움은 **"가만히 있는 자신"**의 처지에서 비롯되고, **"기가 막혔다"**는 감독의 **"또 이런 말을 들으니"**에서 비롯된 복합 감정이다. 감독이 **"숙인 볼을 결눈질해 보며 그들의 앞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선비의 감정과는 다른 맥락의 행동이다. 따라서 적절하다.

③ ✓ 정답

㉢에서 간난이가 **"벌떡 일어나서 감독의 말을 일일이 반박하고 싶은 흥분을 가슴이 뜨겁도록 느끼었다"**는 것은 반박 충동이 있었으나 이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것이 **"무력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B]에서 간난이는 **"그럴듯한 수작을 하여 우리들을 속여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작"**이라며 감독 연설의 각 항목을 체계적으로 반박하고 있고, ㉢에서는 능동적으로 외부 연락 통로를 모색하고 있다. 이는 ㉢의 역제가 무력감이 아니라 전략적 자제에 해당함을 보여 준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④

㉣에서 간난이가 담을 걱정한 것은 **"행여나 그 담 밑으로 어떤 구멍이라도 발견할까 함이었다"**에서 기숙사 밖으로 통할 수 있는 통로를 찾으려는 구체적인 목적과 관련된다. 또한 **"벽돌로 까맣게 올려 쌓고"** **"철벽 같은 담"**에 대한 인식은 공장의 물리적 통제에 대한 인식을 보여 준다. 따라서 적절하다.

⑤

㉤에서 선비는 **"수염을 올려붙인 호랑이 감독이 자기계로만 눈꼬리를 돌리고 웃는 모양이 무섭고도 보기가 싫었는데 간난의 말을 듣고 나니 그 눈매가 곧 눈앞에 나타나 보"**여 **"감독이 덕호로 변하여지는 것을 그는 가슴이 울울하도록 느꼈다"**. 이는 간난이가 감독에 대해 한 말이 선비에게 강한 정서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적절하다.

**평가 목표** 이 문항은 [A]와 [B]에 나타난 감독의 연설과 간난이의 반박이 각각 어떤 기능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두 구간의 내용을 대비하여 각 선택지의 적절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①

[A]에서 감독이 내세우는 것은 직공들의 생활 개선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외출 불허, 벌금 등의 통제를 복지 시책으로 포장한 것이며, [B]에서 간난이는 개인적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속여서", "수작"**이라며 착취 구조에 대한 체계적 비판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②

여공들이 감독의 말에 호응한 것은 감독의 진심이 전달된 결과가 아니라 기만적 약속에 현혹된 것이며, [B]에서 간난이의 경계는 여공들의 호응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감독 논리의 기만성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③

[B]에서 간난이는 감독의 경고에 위축되어 불안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듯한 수작을 해야 우리들을 속여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작"**이라며 당당하게 감독 연설의 각 항목을 반박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④

[A]에서 감독이 제시하는 처우는 직공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착취를 시혜로 위장하는 것이며, [B]에서 간난이의 비판은 처우가 불충분하다는 양적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속여서", "수작"**이라는 질적 기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⑤ ✓ 정답

[A]에서 감독은 외출 불허를 **"풍기를 엄밀히 감독하는 까닭"**으로, 운동과 휴일을 **"건강을 위하여 하는 일"**로 제시하며 통제를 복지 시책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B]에서 간난이는 **"그럴듯한 수작을 해야 우리들을 속여서 돈 한푼 우리 손에 쥐어 보지 못하게 하고 죽도록 우리들을 일만 시키자는 것",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작"**이라며 [A]의 각 항목을 반박하여 감독 논리의 허구성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평가 목표** 이 문항은 〈보기〉에 제시된 공간 이동과 인물의 인식 전환에 관한 관점을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보기〉의 개념과 작품의 구체적 장면을 대응시키며 각 선택지의 적절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①

윗글에서 감독이 **"처음 와서도 아주 잘 해"**라고 간난이를 언급한 뒤 선비에게 **"어서 잘 배워야 해…… 그래서 빨리 일을 해야 돈을 벌지"**라고 독촉하는 것은, 〈보기〉에서 제시한 대공장이라는 공간에서 노동자를 생산 능력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구조적 착취의 양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②

[B]에서 간난이가 **"저금이니 저축이니 하는 그럴듯한 수작을 하여……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작이란다"**라며 감독 시책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보기〉에서 제시한 각성한 인물이 아직 각성하지 못한 선비에게 구조적 착취에 대한 인식을 전달하는 연대의 실천으로 감상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③

윗글에서 **"전깃불이 환하게 들어왔다"**를 계기로 선비가 **"온갖 기계며 여직공들을 볼 때, 자기는 어떤 판 세계에 들어왔는가?"**라고 느끼는 것은, 〈보기〉에서 제시한 농촌에서 대공장으로의 공간 이동이 인물에게 새로운 환경에 대한 감각적 충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감상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④ ✓ 정답

〈보기〉에서 **"개인적 피해의 기억을 구조적 착취에 대한 인식으로 전환해 가는 과정"**이라고 한 것은 의식적 각성의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윗글에서 선비가 **"감독이 덕호로 변하여지는 것을 그는 가슴이 울울하도록 느꼈다"**는 것은 구조적 착취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감독에 대한 공포가 과거의 기억으로 투사된 감정적 반응이다. 간난이 또한 **"너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분명하지 않지?"**라고 하여 선비가 아직 인식의 전환에 이르지 못했음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⑤

[B]에서 간난이가 **"감독들과 그들 뒤에 있는 인간들은 덕호보담도 몇천 배 몇만 배 더 무서운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보기〉에서 제시한 개인적 피해의 기억인 덕호를 매개로 구조적 착취의 실체를 선비에게 전달하려는 시도로 감상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평가 목표** 이 문항은 (가)와 (나)에 사용된 표현 기법과 그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각 작품에 나타난 비유, 반복 등의 표현상 특징을 중심으로 각 선택지의 적절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①

(가)에 "**어디로 가려고, 무슨 일이 바빠서**"와 같은 의문의 형식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물의 역동적 움직임에 대한 친근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인지 대상에 대한 아쉬운 심정을 부각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② ✓ 정답

(가)에서 정자의 지세를 "**구멍에 든 늪은 용이 / 선잠을 막 깨어 머리를 엮었으니**", "**구름을 탄 청학이 / 천리를 가려고 두 날개를 벌린 듯하다**"와 같이 자연물에 빗대어 공간의 형세를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오곡은 어디메오**", "**칠곡은 어디메오**", "**구곡은 어디메오**"와 같이 물음을 반복하여 각 곡의 공간을 환기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③

(나) 제6수의 "**강학도 하려니와 영월음풍 하리라**"는 학문과 풍류를 병렬적으로 제시한 것인지 대구를 활용한 것이 아니며, 두 태도를 대비한 것이 아니라 양립시키는 서술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④

(가)에 "**푸르거든 희지 말라**"와 같은 색채어가 있으나 이는 물의 속성을 서술한 것인지 계절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나)의 "**금수로다**" 역시 단풍의 아름다움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색채를 나타내는 어휘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⑤

(가)는 산에서 정자로, 정자에서 물로 이어지는 공간적 시선 이동이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순차적 묘사가 아니다. (나) 역시 곡 번호에 따른 공간 이동이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순차적 묘사가 아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평가 목표** 이 문항은 (가)의 [A]~[C] 각 구간의 시상 기능과 화자의 정서·태도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특히 [C]에서 화자가 한가롭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B]와의 연결 속에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중심으로 각 선택지의 적절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①

[A]에서 "무등산 한 줄기 산이 동쪽으로 뻗어 있어 / 멀리 떼고 와서 제월봉이 되었거늘"이라고 한 것은 산세와 함께 정자의 입지를 드러낸 것이다. [B]에서 "조물주가 야단스러워 빙설로 꾸며내니"라고 한 것은 겨울 경물의 변모에 대한 경탄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적절하다.

②

[B]의 "세상이 풍성하여 가는 곳마다 경이롭다"에서 화자가 느끼는 경이로움은 [C]의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로 이어지는 분주한 행위의 배경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③ ✓ 정답

[C]에서 "인간 세상을 떠나와도 내 몸은 한가로울 겨를이 없다"라고 한 것은 자연 생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한가롭지 못한 것이 아니다. [B]의 "세상이 풍성하여 가는 곳마다 경이롭다"와 연결하면, [C]의 분망은 자연이 너무 풍성하여 즐길 것이 많아 바쁘다는 역설적 충일에 해당한다. "번거로운 마음이지만 버릴 것이 아예 없다"라는 표현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④

[B]에서 "경궁요대와 옥해은산이 / 눈 아래 펼쳐있구나"라고 한 것은 겨울 경물의 모습을 옥으로 된 궁궐과 은빛 산의 이미지에 비유하여 자연의 장관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적절하다.

⑤

[A]에서 용·청학 비유로 부각된 정자의 위용은, 정자에서 조망되는 경관의 웅장함을 나타낸다. 이는 [C]에서 화자가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와 같이 자연을 빠짐없이 향유하려는 태도가 가능한 경관적 배경이 된다. 따라서 적절하다.

**평가 목표** 이 문항은 〈보기〉에 제시된 자연 경관 형상화의 두 방식을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보기〉의 '감각적 포착'과 '이념적 가치 발견'이라는 관점을 각 작품의 구체적 표현에 정확히 대응시키며 각 선택지의 적절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①

(가)에서 **"선잠을 막 깨어 머리를 엮었으니"**, **"어디로 가려고, 무슨 일이 바빠서 / 달려가는 듯, 따라가는 듯"** 등은 자연물의 역동적 변화에 주목하는 표현이다. 이는 〈보기〉에서 경물을 감각적으로 포착하여 이에 동참하는 화자의 자세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절하다.

②

(나) 제1수에서 **"학주자를 하리라"**는 주자를 본받아 학문을 닦겠다는 것으로, 자연에 머무는 이유를 도학적 실천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는 〈보기〉에서 자연에서 이념적 가치를 발견하여 도학적 실천의 계기로 삼는 화자의 자세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절하다.

③

(가)의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는 자연의 다양한 면모에 감각적으로 동참하려는 화자의 자세가 구체적인 생활 서술 방식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보기〉에서 동참하는 자세가 자연 속 생활을 서술하는 방식에 반영된다고 한 것과 부합한다. 따라서 적절하다.

④ ✓ 정답

선지 전반부에서 (가)의 자연 속 풍요로운 삶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C]의 분망 서술과 부합하여 적절하다. 그러나 후반부에서 **"임금의 은혜"**에서 자신의 출처를 해명하는 화자의 인식을 읽을 수 있다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가)의 **"이 몸이 이리 지내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이다"**는 자연 향유가 가능한 기반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는 것이지, 자신이 왜 자연에 머무는지를 적극적으로 정당화하는 출처 해명이 아니다. 〈보기〉에서 **"자신의 출처를 해명"**하는 것은 은퇴의 의미를 도학적 실천으로 정당화하는 행위로, 이는 (나)의 **"학주자를 하리라"**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⑤

(나) 제10수의 **"유인은 오지 아니하고"**는 자연 속에서 홀로 머무는 정적인 관계 형상화이다. 이는 (가)에서 자연의 다양한 면모에 분주히 몰입하는 화자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보기〉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형상화하는 방식의 차이가 반영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절하다.